

주간 규제 정보

Vol. 272

2019. 12. 02 ~ 2019. 12. 08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3
2.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문가들,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7
3.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활용을 위한 산업용 표준화로 나아가자! 8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4. 전자파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가(교육강사)양성 10

식품의약품안전처(<http://mfds.go.kr>)

5.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10
6.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12월 12일부터 등록 의무화 11
7. [인도] 식품안전기준, 조직화되지 않은 공급자 등록을 위하여 우유공급업체인증제도 착수 예정 12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8. 미 뉴욕주, 여성 위생용품 성분 공개 법안 통과 12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3
10. 중국, 자동차 연비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지표 변경 발표 13
11.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안) 행정예고 14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2. 中 12월 1일부 新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시행 15
13. 말레이시아 동물사료 시장동향 18
14.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UAE의 유기농 시장은 성장 중 22
15. 요르단 출산을 꾸준히 증가세, 우수한 품질을 내세워 유아용품 시장 공략 필요 28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 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산업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등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2명으로 구성

○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하였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대처능력도 미흡

○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정부는 `16년에 수립한「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여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어린이제품 리콜처분 현황 : (‘16) 145건 → (‘17) 141건 → (‘18) 227건

□ 이에 따라 금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

차단

②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

* 인증기관에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발송하고, 안전관리메뉴얼, 부적합보고서 등 제도·기술적 정보자료 제작·배포

③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사용연령 구분 기준 (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

④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 확대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2차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제품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

◇ 관세청과 협업강화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중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17개 품목 이외에 ‘21년까지 10개 품목**을 추가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비중을 `19년 50%에서 `21년까지 80%까지로 확대토록 추진한다.

* 국민안전과 환경보호 목적을 위해서, 수입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등 기타 조건의 구비여부를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품목

** 안전확인대상 3개 품목(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온열팩) + 공급자적합성대상 7개 품목(불법·불량제품 단속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세관장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지정현황 >

| 구분/지정/미지정 | /관리등급 | /품목수 | / 품 목 |
|-----------|----------|------|----------------------------|
| | / 안전인증 | / 4 | / 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카시트 등 |
| | / 안전확인 | / 13 | /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유모차 등 |
| | / 안전확인 | / 3 |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
| | / 공급자적합성 | / 14 | /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구 등 |

○ 또한 관세청 ‘집중관리 품목군’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심사·검사 비중*을 높이도록 관세청과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 집중관리 품목중 어린이제품 심사·검사비중 : (`19) 4% → (`21) 8% 이상

◇ 소비자·정부·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유통감시를 강화한다.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점검을 현재 일부 희망하는 1~3개의 지자체와 합동점검 방식에서 전국 지자체와의 정기 합동점검 체계로 강화하고,

- 문구점, 재래시장 등 기존 어린이제품 취약지역 이외에도 키즈카페, 슬라임카페 등 신종 놀이영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 또한,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 학교장터에서 어린이제품은 KC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조달청·교육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어린이제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유하고 불법제품 유통방지를 협력

-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감시단」운동을 확대('19년 120명 → '21년 150명)할 계획이다.

◇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 안전인증기관의 수시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 품목 외에 완구 등 '안전확인' 16개 품목에 대하여서도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 자신들이 인증(안전확인)한 제품이 최초 인증시 안전기준과 동일한 품질로 유통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안전인증기관의 '수시검사' 대상

(현행) 안전인증 (4개 품목) → (개선안) 안전인증(4개) + 안전확인(16개)

○ 현행 동일모델 확인제도*를 개선하여 많은 동일모델을 관리할 수 있게 인증번호 체계를 변경하여 식별과 추적이 가능토록 한다.

*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인증제품과 유사성이 높을 시, 중복 시험·검사 항목을 생략하고 인증·확인하는 제도 (동일 인증·신고 번호 사용)

< 2.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 어린이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시험·검사와 관련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여서 영세한데 반해, 많은 시험·검사항목으로 일반 생활용품에 비해 훨씬 높은 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의류제품 평균 KC인증비용 : 유아·아동용 약 70만원, 성인용 약 10만원

○ 어린이제품 기업의 부족한 제품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용 섬유제품 등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기관에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며,

- 어린이제품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 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생산·유통을 유도한다.

- 어린이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기존 ‘법.제도’ 중심에서, 제품결함 개선 등 ‘기술분야’를 포함한 심층 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발송하고, 안전관리메뉴얼, 부적합보고서 등 제도·기술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

- ◇ 안전관리 범위·방법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을 고도화한다.
 - 어린이제품의 ‘사용연령 구분 기준 (3세이하, 8세이하 등)’을 마련하고,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는 한편, 특히 성인과 어린이의 혼용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시험검사의 명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목별 측정 항목·부위·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검사지침서를 개발·적용 한다.
- ◇ 전문 인력·시스템 활용을 통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학계·업계·소비자단체·전문기관의 전문가로 ‘어린이제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기준 검토, 유권해석 자문, 제도·기술 연구 등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품안전 위해도 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위해도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검사·인증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어린이제품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구축도 착수한다.

< 4.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

-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을 확충 한다.
 - 어린이제품관련 선도(연구)학교 지정·운영을 확대하고(‘19년 15개교 → ‘21년 30개교), ‘찾아가는 교육’도 기존 지방소재 학교에서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지역 거점별 어린이제품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소외 지역을 위한 이동형 안전체험시설(체험버스 등) 도입을 검토한다.
- ◇ 제품안전 교육의 저변 확대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어린이·교사·학부모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육성 등 제품안전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 정부부처·지자체와 공동 콘텐츠 개발·공유, 지역거점별 설명회 개최 등 제품안전 홍보관련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문가들,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 국가기술표준원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개최 -

①유공자 시상, ②초청특강(규제와 산업경쟁력), ③소통과 화합의 마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행사를 '19.12.4.(수) 서울 팰레스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행사에서 무역기술장벽(TBT)대응 관련기관, 수출기업 등 전문가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 민관협력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붙임1]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19.12.4.(수) 14:30~17:00 / 쉐라톤 서울 팰레스 강남(다이너스티)

○ (참 석 자)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TBT대응 유관기관, 관련 기업 전문가 및 유공자, 논문공모전 대상 수상자 등 약 120명

○ (주요 내용) (1부) TBT대응 유공자시상, TBT대응 논문공모전 대상 시상·발표
(2부) 초청특강(규제와 산업경쟁력) (3부) 소통과 화합

□ (유공자 시상)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 전문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유공자에 총 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붙임2]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표창 2점

○ 삼성전자 변윤희 프로 등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봉희 책임 등 2명은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 장관상 : 김민정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변윤희 프로(삼성전자), 서지숙 주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재승 선임연구원(LG화학)

· 원장상 : 김봉희 책임(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형석 선임연구원(LG전자)

□ (논문공모전 시상)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기술규제(TBT)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올해로 4회째 개최되었던 논문공모전의 시상도 이루어졌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이번 TBT대응 논문공모전은 전년에 비해 여러 대학에서 많은 수의 우수한 논문이 접수되어 점차 TBT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진우 학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참관기회를 획득하였고, 동 행사장에서 수상작* 발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붙임3]

*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무역효과 분석과 WTO TBT 협정 합치성」

□ (초청특강) 이어진 2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함양과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양대학교 광노성 교수가 '규제와 산업경쟁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 광노성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가 혁신의 성패를 결정하는 병목이 되면서 규제대응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 선결해야할 과제로 수출현상, 관념주의, 소통단절을 지목하며, 소·부·장의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국내의 강한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타국과 비교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소통과 화합) 행사의 마무리는 기업 및 TBT 대응 컨소시엄 등 TBT 대응 활동 전문가들이 그간의 활동 소감과 향후 다짐을 공유하는 소통과 화합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 참석자들은 소속 기관과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TBT대응을 하며 경험했던 성공사례, 기관 간 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기업과 유관기관,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공동 대응의 중요함에 공감하였고,

○ 정부는 현장에서 전달된 실무자의 목소리가 TBT대응 지원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주요국 간 무역갈등이 깊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등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 새로운 융복합기술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의 기술규제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TBT 대응정책 추진체계도 더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야'함을 강조하였으며,

○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 민·관 컨소시엄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활용을 위한 산업용 표준화로 나아가자!

- 국가기술표준원, 2019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워크숍 개최 -

□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성장 동력이자 사회변화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국제표준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2월 5일(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분야 해외 표준전문가(美 NIST)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2019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AI를 관련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산업별 AI 응용기술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표준화 대응체계 구축을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 2019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워크숍 】

○ 일시/장소 : 2019. 12. 5.(목) 10:50 ~ 17:00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삼다홀B)

○ 주관/주최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

○ 참석자 : 미국 AI 표준 전문가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

□ 또한, AI기반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가 AI 적용을 위한 표준화를 논의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선도적인 AI 응용산업이 앞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날 행사에는 AI분야 국제표준화위원회(ISO/IEC JTC1 SC42)의 표준화 주도국인 미국의 전문가가 참석해 AI 표준화 동향을 설명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AI의 산업별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표준화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 現 AI 국제표준화위원회의 빅데이터 표준화 작업반 의장이자 미국 NIST(국립기술표준원)의 AI 연구원인 ‘우 창’(Mr. Chang Wo)은 AI와 빅데이터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였다.

① 세부주제로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성균관대 신수용 교수가 ‘헬스케어 인공지능 표준화 동향’를 주제로 의료AI 국제표준화(ISO TC215) 동향 소개와 향후 의료AI에 필요한 표준들을 제안했다.

② 유통 분야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 (Amazon Web Services Korea) 백현 부장이 ‘인공지능 매장 Amazon Go’ 라는 주제로 스마트 매장에 적용되는 AI 응용 서비스를 소개하고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③ 제조 분야로는 현대제철 이정환 책임이 ‘디지털 트윈 표준화를 위한 유스케이스(Use cases) 개발’을 주제로 AI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설계 및 실제 제조라인에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④ 건설 분야에서 한국기계연구원 한형석 책임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재 대피로 안내 시스템 개발’ 사례를 통해 스마트시티에 활용 가능한 빌딩용 AI 화재 대피기술의 구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⑤ 마지막으로 가전 분야에는 LG전자 최정규 연구위원이 ‘LG AI ThinQ 플랫폼 적용 사례’를 통해 AI기술이 접목된 IoT 스마트 홈 가전을 소개하는 등 표준화를 필요로 하는 AI 응용 산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 특히,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은 국내기업이 개발한 산업별 AI 응용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함을 공감했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공지능 기술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인 미국도 연방정부차원의 표준화 정책*추진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를 해 나갈 만큼 AI 표준이 중요한 정책도구” 라면서

○ “우리나라가 산업경쟁력을 보유한 IoT가전, 자율차, 스마트제조 등을 기반으로 AI 응용 산업까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원도 ‘20년초까지 AI산업 표준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내 AI 관련 산업계 전문가의 표준참여를 확대하고 AI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제 발굴 및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AI 기술표준 개발 계획』美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이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에 따라 '19. 7월 공개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

4. 전자파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가(교육강사)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안전관리 기술자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총 36명의 전자파 안전관리 전문가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 '전자파 안전관리'란 특정시설(통신국사 또는 스마트시티 관제시설 등) 또는 특정장치(자율주행차 등)를 대상으로 이에 설치된 여러 기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단일 기기나 단말 단위로 전자파를 관리하는 것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제도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사례와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자파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번 전문가 양성교육은 전자파 안전관리 제도의 도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번에 배출된 강사를 통해 내년에는 실제 전자파 안전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자들을 교육하게 된다.

□ 이 교육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 공동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이루어졌으며, 교육 분야는 전자파 위험요소 관리, EMC 감리제도, 전자파 안전관리 측정, 전자파 안전관리 대책 기술, 전자파 시스템 엔지니어링 안전관리이다.

출처([국립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mfds.go.kr>)

5.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12월 4일 개정하였습니다.

※ 인체조직: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 및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총 11개)을 말함

※ 조직은행: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히 인체조직은 수입의 비중(80%)이 높아 해외 제조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 `18년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현황: (생산) 137,191개, (수입) 611,064개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입니다.

○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은 해외 제조원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이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확인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해외 제조원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 조직은행 설립허가가 취소됨

○ 또한, 해외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국내 조직은행을 비롯해 해외 제조원과 수출국 정부기관에 통지하고 수입을 중단하게 됩니다.

○ 조직은행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 되어 의사·치과의사 등 면허가 있거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인체조직감시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인체조직이 사람에게 이식되어 사용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명칭검색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6.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12월 12일부터 등록 의무화

-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유통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더욱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1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12.11.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

✓ 근거법령: 「약사법」 제42조 제7항 (2018.12.11. 개정)

✓ 주요 등록정보

- ▲해외제조소 명칭·소재지 ▲해외제조소 관리자 ▲수입품목의 명칭·제형·종류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

✓ 등록 방법

- 의약품등 수입자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통해 등록

□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12월 6일 삼정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모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를 등록·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우리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7.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조직화되지 않은 공급자 등록을 위하여 우유공급업체인증제도 착수 예정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위원회에게 포장 우유 제품의 세율을 5%에서 0%로 낮추도록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할 예정임. 해당 조치는 조직화되지 않은 유제품 부문의 안전 및 위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식품안전당국은 또한 조직화되지 않은 우유 판매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제공 받는 원유의 품질 및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유공급업체인증제도(Verified Milk Vendor Scheme)을 착수할 예정임. 안전하고 양질의 우유 및 우유 제품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한 FSSAI 관계자인 파완 아가르왈 CEO는 화요일에 '포장 우유 제품을 판매하던 많은 조직화되지 않은 공급업체들이 GST를 피하기 위해 포장 없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함. 이에 따라 GST 위원회에게 포장 유제품의 세율을 5%에서 0%로 낮출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함.

모든 공급업체는 식품 안전 및 표준법에 따라 등록해야하지만, 현재 5%만이 등록되어 있음. 우유공급업체인증제도(Verified Milk Vendor Scheme)에 따라 조직화되지 않은 우유 공급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음. FSSAI 관계자 아가르왈은 이번에 이 제도에 따라 10만개의 우유 공급 업체가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조직화된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FSSAI는 이미 시험 및 검사계획(Scheme of Testing and Inspection)을 통보했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생산량 전체에서 제품을 시험하고 안전 및 품질 기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함.

아가르왈은 '해당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년에 유제품 업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제3자 감사 기관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함.

한편 FSSAI는 주 식품 연구소에 아플라톡신 M1, 항생제 및 살충제와 같은 오염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신속한 시험과 고급 정밀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시험 장비를 제공하고 있음.

- 정보출처: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agri-business/fssai-to-launch-verified-milk-vendor-scheme-to-register-unorganised-suppliers/article30089446.ece>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8. 미 뉴욕주, 여성 위생용품 성분 공개 법안 통과

2019년 10월, 미국 뉴욕주는 여성 위생 용품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S 2387B)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안은 뉴욕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여성 위생 용품이 포함하고 있는 성분을 평이한 언어로 알아보기 쉽도록 포장재 또는 포장 라벨에 표기해야 합니다. 해당 여성 위생 용품은 탐폰이나 관련 생리용품을 의미합니다.

제조사는 2021년 4월까지 새로운 규정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위반 제품 당 최대 \$1,000까지 제조사의 주 전체 매출의 1%를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 법안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9/s2387/amendment/b>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9년 11월 27일 환경부는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고시 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인주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로 확대)하고, 물 이외의 물질은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용품에 사용 금지
-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일부 생활화학제품(세정제품, 세탁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
- 공기청정기 등 항균필터(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함유 금지 및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보완

2019년 12월 17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0. 중국, 자동차 연비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지표 변경 발표

2019년 10월 22일, 중국은 자동차 연료 소비 및 기업별 차량 평균 연료 소비(CAFC*)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지표에 관한 표준(GB27999-XXXX)인 『자동차 연료소비의 평가 방법 및 지표**』를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企业平均燃料消耗量)

** 乘用车燃料消耗量评价方法及指标

본 표준은 차량 총중량(Gross Vehicle Weight) 3,500kg 이하인 모든 M1 차종(9인승 이하)에 적용되며 가솔린, 디젤과 같은 기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외에도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차량 및 알코올 차량과 같은 신규 에너지 차량에 해당되며, 기존 표준인 GB 27999-2014의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범위 확대
- 차량 연료 소비의 목표값 증가
- 신규 에너지 차량 기업의 평균 연료 소비에 대한 할인 배수 조정

또한 신규 국제표준 측정방법(WLTP*)을 적용하여 차량 유형별 연비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설정하여 최저 연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 기존 시험방법 NEDC 대비 차량중량, 도로주행 저항, 속도, 온도 등 실제도로 주행여건을 폭넓게 반영한 시험

본 사항은 2019년 12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tbtims.wto.org/en/RegularNotifications/View/152529?FromAllNotifications=True>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11.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9년 12월 3일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전율 조정, 점비점 배출부하량 전환 승인기관 변경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 개정안을 공고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질이 양호한 지역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차원으로 기존에 적용된 안전율 하향 조정하여 수질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인하고자 함(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 점·비점 배출부하량 전환 승인기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배출부하량 사후관리 기관인 지방환경관서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30조제5항)

2019년 12월 23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2. 中 12월 1일부 新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시행

- 식품안전통용표준 적용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
- 식품안전 위법상황을 연합신용체계에 반영해 패널티 부과 -

□ 개요

- 오는 12월 1일부로 2019년판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됨.

주*:

원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0/31/content_5447142.htm?from=groupmessage

- 조례는 중국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식품안전법>에 근거해 제정된 행정법규로 식품 생산, 경영, 유통과 수출입을 규범화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임.
- 2009년 7월 최초 발표된 이래 2016년 일부 수정한 바 있으나 2018년 <식품안전법>개정판에 따른 법개정은 이번이 처음임.

□ 주요 내용

- 신 조례는 총 86개 조항으로 현행(2016년 개정판) 대비 22개 조항 늘어 관리감독 강화
 - 주요 골자는 △ 식품안전표준 시행 및 적용 규범화 △ 무작위 단속 등 관리방법 보완 △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 저장·운송 규범화 △ 허위·과장 광고 금지 △ 생산경영자의 책임 강화(위탁생산 포함) 등

1. 식품안전표준 시행 및 적용 규범화

- (제13조) 식품안전표준 발표부터 공식 시행까지의 ‘공백기’ 내 해당 표준을 사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예) 과자 新 국가식품안전표준 발표일이 2019.6.1.이고 시행일이 2020.1.1.일 경우(가정)

과자 생산기업은 2019.6.1.부터 표준 시행되기 날(2019.12.31.)까지 해당 표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그러나 ‘적용 표준’ 라벨표식 방법은 ‘예포장식품라벨통칙’(개정 중)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제47조) 식품안전통용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식품은 “국가표준 없는 식품”에서 제외
 - 주*: 식품안전통용표준 예시: GB 2761, GB 2762 등
 - 일부 수입식품은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국가표준이 없음. 이러한 제품을 중국 정부는 “국가표준 없는 식품”으로 분류
 - “국가표준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관련 부처에 “국가표준 제정 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주관부처 허가 없이 수입금지 조치해왔음.
 - 조례 47조는 “국가표준 없는 식품”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해외식품수입업체는 취급제품의 국가표준 존재 여부, 식품안전통용표준 적용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함.

- (제12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은 “지방특색식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관련 지방표준 제정 금지
 - 식품안전 지방표준 제정을 “지방특색식품”에만 한함.

-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해 국가급 표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2. 무작위 단속 등 관리방법 보강

○ (제20조/제8장)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인원의 전문성을 심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각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의 단속내용을 규범화

- 제62조에서는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의 불법행위 적발 시 현금 이상 식품안전부처가 플랫폼 관계자의 책임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지방식품안전부처 단속 상시화 선언

-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

○ (제35~37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그 생산력, 생산과정, 제품 품질과 라벨 표식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

3.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 (제66조) 식품안전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며, 식품안전 위법상황을 타 부처와 구축한 연합신용체계에 반영해 패널티 부과

- 기업신용등급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등록되는 기업은 관련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패널티를 받게 됨.

4. 저장·운송 규범화

○ (제24~25조) 콜드체인 장비, 시설 등 특수 저장·운송체계 구축 요구

- 관련 기업은 보온·냉장·냉동 등 설비를 갖춰야 하며, 효과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무화

- 식품생산경영자가 아닌 기업이 온도·습도 등 방면에 특수요구가 있는 식품을 운송, 저장할 경우 영업집조 취득 30일 내 식품안전관리감독부처에 등록(備案)해야 한다고 명문화

- 운송·저장 업체는 식품 운송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2년간 운송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

5. 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라벨 표식 규범화

○ (제34조, 제43조) 건강자문 등 그 어떠한 방식으로 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 불법으로 취득한 식품점검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식품을 중점 단속 품목으로 분류하고 각 지방에 감독팀 파견해 관련 기준과 제도 미비, 허위 광고 등을 단속하는 '100일 단속'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해왔음.

주: '보건시장 100일 정비행동(1.8~4.18.)'으로도 불린 이번 단속에 274만 명 공무원이 동원됨. 162만 보건매장 점검 실시했으며, 총 2만1152건 위법사건을 발견해 총 6억6400만 위안 벌금 부과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정비 상시화를 위해 연내 블랙리스트 DB를 구축 예정이라고 밝힘.

6. 생산경영자의 책임 강화(위탁생산 포함)

○ (제21조) 식품 및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는 생산허가증 소유하는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고 생산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문화

-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에서는 식품생산기업의 등록 의무화 규정을 취소함.

- 이번 개정판에서 위탁생산 양측의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

□ 전망 및 시사점

○ 관련 규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

- '먹거리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로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법제도 완비화 및 관리감독 규제 강화 가속화 추세

- 지난 5월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규정 강화 계획>에서는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기준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2035년까지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현지 변호사는 향후 중국 식품위생 담당 부처에서 기존 위생 안전 규정 강화 및 신규 제정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는 식품 수출 시 변경될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영유아 식품, 건강식품 등 '특수식품'의 경우, 국제급 수준의 안전성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

- <중국 식품 안전규정 강화 계획>에서 영유아 분유와 건강기능식품이 관리강화대상으로 직접 언급됨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큼.

[참고] 중국 식품안전관리 법제도 체계

| 법률 (입법기관 제정) | 행정 법규 (국무원 산하 부처 제정) | 규칙 (국무원 산하 부처 제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품질법 (产品质量法) - 표준화법(标准化法) - 계량법(计量法) - 소비자권익보호법 (消费者权益保护法) - 동물방역법 (动物防疫法) - 수출입동식물검역법 (进出境动植物检疫法) - 수출입상품검사법 (进出口商品检验法) - 농산물 품질안전법 (农产品质量安全法) - 국경위생검역법 (国境卫生检疫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 상품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특별 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 농약 관리조례(农药管理条例) - 동물의약품 관리조례(兽药管理条例) - 표준화법 실시조례(标准化法实施条例) -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 -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 무면허경영 조사처리단속법(无照经营查处取缔办法) -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 위험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관리 조례(濒危野生动植物进出口管理条例)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 관리 실시세칙(食品生产加工企业质量安全监督管理实施细则) - 공업품 생산허가 관리조례 실시조치(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细则) - 식품첨가제 위생관리조치(食品添加剂卫生管理办法) - 농산물산지 안전관리조치(农产品产地安全管理办法) - 수출입 육류식품 검사검역 관리 조치(进出口肉类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 유통영역 식품안전 관리조치(流通环节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생산등록 등기 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경제일보(經濟日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2019-12-02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 말레이시아 동물사료 시장동향

□ 제품명: 동물사료(HS Code 2309.90)

□ 시장동향

○ 말레이시아의 애완 고양이 수는 약 85만7000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애완견 수보다 두배 많은 수치임.
- 말레이시아 인구의 60%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개를 만지거나 기를 수 없는 문화이기에 고양이가 상대적으로 많음.

- 유료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말레이시아인들은 고양이 사료에 5억1860만 링깃, 강아지 사료에 2억 7290만 링깃을 지출했음.

○ 최근 말레이시아 내 유기농 사료, 프리미엄 사료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에 따라 프리미엄 사료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 현황

말레이시아 동물사료 수출입동향(HS 코드 230990)

(단위: US\$ 백만)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8년 상반기 | 2019년 상반기 |
|----|-------|-------|-------|-------|-----------|-----------|
| 수출 | 116.0 | 134.2 | 145.9 | 162.7 | 85.3 | 75.4 |
| 수입 | 182.0 | 155.2 | 193.0 | 216.2 | 106.5 | 104.6 |

자료: World Trade Atlas

○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동물사료 총 교역량은 3억 7890만 달러로 2015년 2억 9800만 달러 대비 27.1% 성장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8.7% 수준임.

○ 2019년 상반기 기준 말레이시아의 동물사료 총 교역량은 1억 8천만달러로 2018년 1억 9180만 달러에 비해 6.1% 감소했으며, 총 수출액은 7540만달러로 11.6% 감소, 총 수입액은 1억 460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1.7% 감소함.

말레이시아 동물사료 국가별 수출동향 (HS 코드230990, US\$ 백만)

| 순위 | 국가 | 2016 | 2017 | 2018 | 2019년 상반기 |
|----|----------|------|------|------|-----------|
| 1 | 미국 | 23.0 | 32.4 | 42.5 | 24.5 |
| 2 | 베트남 | 17.4 | 18.5 | 20.1 | 6.8 |
| 3 | 싱가포르 | 4.7 | 5.4 | 11.0 | 6.3 |
| 4 | 브루나이 | 14.8 | 14.0 | 15.3 | 4.8 |
| 5 | 러시아 | 2.9 | 7.1 | 9.1 | 3.5 |
| 6 | 파키스탄 | 2.3 | 3.3 | 4.5 | 2.4 |
| 7 | 중국 | 16.4 | 10.7 | 6.3 | 2.4 |
| 8 | 캐나다 | 0.9 | 1.3 | 1.2 | 1.9 |
| 9 | 남아프리카공화국 | 5.6 | 6.4 | 5.5 | 1.8 |
| 10 | 인도 | 3.0 | 2.9 | 3.7 | 1.8 |

자료: World Trade Atlas

○ 말레이시아의 동물사료 수출대상국 1위는 미국으로, 2019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2450만 달러 규모 였으며, 전체 수출액의 33.0%를 차지함.

○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2.8% 감소한 680만 달러, 싱가포르로의 수출은 43.8% 증가한 510만 달러를 기록함.

말레이시아 동물사료 국가별 수입동향(HS 코드230990, US\$백만)

| 순위 | 국가 | 2016 | 2017 | 2018 | 2019년 상반기 |
|----|------|------|------|------|-----------|
| 1 | 베트남 | 17.0 | 39.9 | 51.7 | 25.3 |
| 2 | 태국 | 28.6 | 29.1 | 26.4 | 14.5 |
| 3 | 미국 | 17.3 | 21.0 | 21.6 | 11.5 |
| 4 | 중국 | 19.1 | 22.2 | 26.7 | 11.4 |
| 5 | 싱가포르 | 10.9 | 9.5 | 13.0 | 6.0 |
| 6 | 벨기에 | 8.6 | 9.4 | 7.9 | 3.5 |
| 7 | 네덜란드 | 9.7 | 6.1 | 6.1 | 3.2 |
| 8 | 호주 | 5.2 | 5.6 | 5.7 | 2.8 |
| 9 | 대만 | 2.8 | 4.7 | 5.1 | 2.4 |
| 10 | 독일 | 1.8 | 2.8 | 4.0 | 2.2 |

자료: World Trade Atlas

○ 말레이시아의 동물사료 1위 수입대상국은 베트남으로 2019년 상반기 수입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253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입 시장점유율의 24.0%를 차지함.

○ 2위 수입대상국 태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450만 달러 규모이며,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1150만 달러를 기록함.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현황

말레이시아 동물사료 대한국 수입동향 (HS 코드230990, US\$ 백만)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년 상반기 |
|-----------|--------|------|-------|------|------|-----------|
| 총액(백만 달러) | 2.81 | 3.06 | 3.53 | 3.67 | 3.98 | 1.37 |
| 증가율(%) | -12.07 | 8.92 | 15.48 | 3.94 | 8.30 | -36.19 |

자료: World Trade Atlas

○ 지난 5년간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수입한 동물사료는 수입액은 2014년 281만 달러에서 2018년 398만 달러로 41.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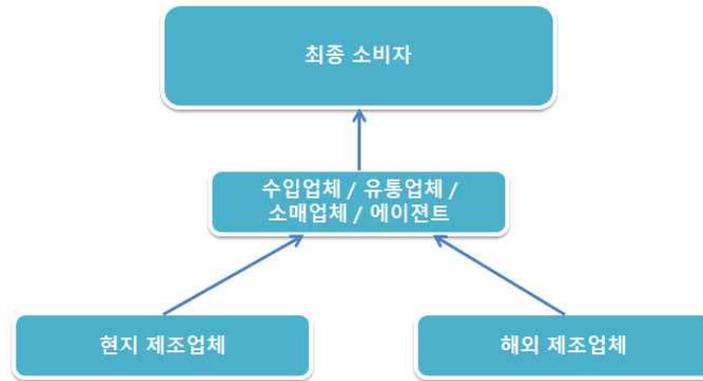
-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해는 2016년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353만 달러 규모임.

□ 관세: (일반) 0%, (AK FTA) 0% / 판매용역세(SST): 0%

○ 동물사료(HS 코드 230990)는 Customs Duties order 2017에 따라 수입관세 0%임.

○ Sales Tax (Rates of Tax) Order 2018에 따르면, 동물사료(HS 코드 230990)에는 판매용역세 0%가 부과됨.

□ 유통구조



○ 수입 동물사료의 대부분은 중저가 사료를 취급하는 수입 및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됨. 이러한 중저가 제품 수입 및 유통업체는 비용 및 편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해 아웃렛이나 식료품점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반면, 프리미엄 동물사료 수입 및 유통업체는 애완동물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문숍이나 온라인 소매 유통망을 주로 활용함. 전문점이나 온라인 소매 유통망을 활용하는 소비층은 주로 중산층으로 애완동물을 위한 사료를 선택할 때 영양과 원료에 민감하게 반응함.

□ 제품 등록·인증서·규정 등

○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동물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수입 승인(예: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우유, 계란 함유)

-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동물사료, 사료 첨가제를 처음으로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Animal Feed Board(동물사료위원회)에 등록하기에 앞서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DVS; 말레이시아 수의 서비스 당국) Malaysia의 검역부서 및 수출입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업체는 DVS의 웹사이트(www.dvs.gov.my)에서 IMPORT/EXPORT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야 하며, 이 신청서를 수입하려는 원산지 국가의 제조업체에 전송해 작성하게끔 해야함. (신청서는 원산지 국가의 제조업체를 대신해 수입업자가 작성해도 무방)

- 관련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아래의 서류 또한 함께 구비해 제출해야 함.

- a. 각 제품의 성분 표
- b. 제조 온도 및 기간을 포함한 각 제품 일련의 프로세싱 과정(Process flow)
- c. 각 제품의 Certificate of Analysis(COA)
- d. 수출국 정부당국이 발행한 Sample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 e. Rendering certificate(MBM에만 해당)

- 말레이시아 수입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위의 해당 서류를 아래 주소로 수입업자의 커버레터를 첨부해 제출해야 함.

Head of Quarantine Services and Import/Export Section
Biosecurity and SPS Management Division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Malaysia

Wisma Tani, Level 5, Podium Block 1A, Lot 4G1, Precint 4, 62630 Putrajaya, Malaysia

-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문서는 검역 서비스 및 수출입 당국의 담당관들에 의해 감사가 수행됨.

- 제품의 수입이 승인되면, DVS의 검역 서비스 및 수출입 당국으로부터 수입 승인 서한이 수입업자에게 발행됨.

- DVS의 검역 서비스 및 수출입 당국에서 발행한 수입 승인 서한을 받은 수입업체는 Animal Feed Board(동물사료위원회)에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

○ Animal Feed Board(동물사료위원회)등록

- 동물사료를 말레이시아로 수입하고자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Section 9, Animal Feed Act 2009 (Act 698)에 따라 동물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 이는 DVS 동물사료 부서의 동물사료위원회 사무국에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음.

○ 동물사료 및 사료 첨가제 수입을 수입 허가

- 검역 서비스 및 수출입 당국으로부터 승인 서한을 받고, 수입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Animal Feed Board(동물사료위원회)에서의 등록절차를 모두 거쳐야 수입업자는 승인된 동물사료 및 동물사료 첨가제를 수입할 수 있게 됨.

- 수입 전 수입업자는 Malays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Department (MAQIS; 말레이시아 검역 당국)로부터 모든 배송에 대한 수입 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이는 E-Permit 1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수입 허가는 제품이 수출국(원산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신청되어야 함.

□ 주요 판매자 현황(경쟁사)

○ 말레이시아에는 다양한 동물사료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으며, 외국 브랜드가 시장에 치열하게 진출하고 있음. 고양이 사료 브랜드로는 Whiskas와 Friskies 등이 있으며, 강아지 사료 브랜드로는 Pedigree 등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시장진출전략

○ 현지 유통업체 혹은 에이전트

- 외국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유통업체나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맺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현지 유통업체는 수입허가신청,통관,해당 동물사료의 소매점 및 수의 클리닉에 직접적인 마케팅 진행 등을 담당함.

○ 기능에 중점을 둔 제품 출시

- 애견인들이 점차 동물사료에 첨가되는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애완견의 영양상태에 대해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됨에 따라 동물사료 산업 관계자들은 제품의 재료 및 성분의 혁신을 꾀해야할 것

- 동물사료에 건강한 영양소를 담아 냐과 동시에 자연적이고 신선하며 생물학적으로도 적합한 성분의 사용이 강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Purina Petcare의 Purina ONE은 고양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6가지 기능을 제품이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Perfect Companion의 SmartHeart Gold는 제품이 필수건강관련 9가지 이점이 있음을 강조함.

○ 유통 채널 확장

- 인터넷 플랫폼 S사 소싱 담당자 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이 점차 동물사료 등 애견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함에 따라 기업들은 Lazada 혹은 Shopee와 같은 인터넷 소매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채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함.

- 현지 애완동물 시장동향 파악 및 새로운 에이전트 발굴을 위해 관련 전시회에 참여도 가능함.

· Pet World Malaysia, 2020년 6월 26-29일, Mid Valley Exhibition Centre

(<https://www.facebook.com/petworldmalaysia/>)

· Pet Fiesta, 2020년 4월 10~12일, Setia City Convention Centre, Shah Alam, Selangor

(<https://petfiesta.com.my/>)

자료: WTA, 유로모니터,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DVS) Malaysia, The Star,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2019-12-02 오유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출처 (KOTRA해의시장뉴스)

14.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UAE의 유기농 시장은 성장 중

- UAE 유기농 식음료 수요 증가, 국내 수요 충족 위해 유기농 제품 생산 및 자급률 증가 추세 -
- UAE 소비자는 EU, USDA 유기농 인증에 대한 신뢰도 높아 -

□ UAE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유기농 식품

○ UAE를 비롯한 MENA 지역의 유기농 시장 성장 추세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Euromonitor는 2018년 기준 MENA 지역 건강 및 웰빙식품 시장 규모는 196억 달러이며 9.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 315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UAE는 MENA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UAE 인구 중 자국민과 전문직 종사 이주민은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층으로 식품의 가격보다 GMO 여부, 화학첨가제 함유 여부 등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 2019년 5월 5일에 발표된 UAE 표준측량청(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의 자료에 따르면, 발표일 기준 직전 6개월간 UAE의 유기농 농산물 생산량이 53% 증가했으며, 2018년 4분기 대비 2019년 4월에 유기농 제품 생산량이 1,240개에서 2,356개로 증가함. 증가한 1,116개 유기농 제품에는 확장된 유기농 농장 180만 m²에서 생산된 채소류, 육류, 가금류 및 달걀 등이 포함됨.

○ UAE 내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인기

- 현지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UAE 전체 인구 중 47.5%가 BMI 지수* 25~30인 비만이며, 13%가 BMI 지수 30 이상인 고도비만임. 또한 11~16세 인구의 40%가 비만이며 11살 이하 인구의 20%가 비만으로, 청소년·어린이의 비만율이 높음.

주* : BMI(Body Mass Index) 지수는 체질량지수를 의미하며,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BMI 지수 18.5 미만은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

- UAE 내 당뇨, 고지혈증 등 비만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잘못된 식습관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경향은 유기농 식품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UAE 젊은 소비자의 SNS를 통한 유기농 및 건강식품 정보 확산

- UAE의 중위연령은 33.5세(자료 : Worldometers)이며, 소비활동이 가장 활발한 밀레니얼 세대가 시장의 주축임. 이들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SNS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징이 있음.

-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YouGov에 따르면 UAE 인구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했으며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일일 6.5시간임. 즉, UAE는 다수가 스마트폰을 보유했으며 SNS 활용도가 높음.

- UAE의 핵심 인구인 젊은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유기농 제품, 웰빙 식단, 건강식을 제공하는 식당 등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하며 소비하는 경향이 있음.

□ UAE 내 유기농 관련 기업

○ 세계 최초 사막의 유기농 수산물 양식 기업, “Fish Farm”

- Fish Farm 사는 육상양식장을 운영하여 해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며, 먹이 등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해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에서 연어 알과 개체를 공급받아 제벨알리(Jebel Ali)의 부화장에서 18개월만에 부화에 성공했으며 현재 하무르(Hammour), 도미 등 다양한 어종을 양식하여 유통하고 있음.
- 2019년 4월부터 대형 유통체인점인 Spinneys에 공식 납품을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 UAE에서 부화하여 육성된 100% 국산 연어 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 UAE 기후변화와 환경부에 따르면 UAE는 연간 226,000톤의 해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중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해당 기업을 통해 해산물 자급률을 증진과 식량 안보 문제 해결 및 자국 내 신선하고 건강한 해산물 공급을 기대해볼 수 있음.

Fish Farm사의 양식장



자료 : The National

○ 유기농 제품 유통 업체

- 현지 기반의 유기농 제품 전문 유통 업체가 존재하며, 일부 대형 식료품 유통점에서도 유기농 제품 전용 진열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례로 대형 유통체인점인 Carrefour는 매장 내 프리미엄 유기농 제품만을 유통하는 “Healthy Kitchen”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사 유기농 브랜드인 “Bio”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 Bio 제품은 타 유기농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현지 유기농 제품 전문 유통 업체

| 기업명 | 기업정보 |
|---|---|
|  Ripe <small>Organic. Local. Farm Fresh.</smal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기업 (2011년 설립) - 실물 상점 및 유기농 농장 보유 - 유기농 식료품과 더불어 유기농 생활용품도 유통 - 두바이, 아부다비 내 특정 지역에서 주말 마켓을 열어 지역 상인들이 자사를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웹사이트 : ripeme.com |
|  Organic foods & cafe <small>family run</smal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기업 (2004년 설립) - 실물 상점과 카페 운영 (두바이 내에 5개 매장) - 호르몬과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10,000여 가지의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식료품과 더불어 유기농 생활용품도 유통 중임. - 웹사이트 : organicfoodsandcafe.com |

자료 : 각 기업 웹사이트

Carrefour 사의 유기농 브랜드 Bio 제품 예시



자료 : KOTRA 두바이 무역관

○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는 레스토랑과 카페

- UAE 내 건강한 외식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기농, 천연 식자재를 사용하는 레스토랑, 카페들이 연이어 개점하고 있음. 그중 일부는 일회용품 대체하는 생분해성(Bio-degradable) 용기, 재활용 가능한 휴지 등을 사용하며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함.

UAE 유기농 식자재 사용 식당 예시

| 식당 | 정보 |
|-------------------------|---|
| Comptoir 1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에 개점했으며,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하여 건강한 식당, 카페로 유명하나 70년대 캘리포니아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 및 가구로도 유명함. - 여행, 패션 잡지 등에 수차례 소개되었으며, 언론 매체인 What's On에서 두바이의 가장 건강한 식당으로 선정하기도 함. - SNS 플랫폼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에 식당명을 태그한 게시물이 5,000개 이상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만한 (Instagrammable)'한 식당 - 웹사이트 : comptoir102.com |
| Freedom Pizz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부제, 호르몬이 함유되지 않은 천연 유기농 식자재 사용 - 플라스틱 식기나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기업 - 식품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배달 서비스도 제공 중 - 웹사이트 : www.freedompizza.ae |
| Lime Tree Cafe &Kitche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에 개점했으며 현재 두바이 내 5개 매장 운영 중 - 농약, 방부제 등이 함유되지 않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요리와 커피, 차 등을 제공 - 포장 용기, 휴지 등은 모두 생분해성(Bio-degradable) 혹은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기업 - 웹사이트 : www.thelimetreecafe.com |

자료 : 각 기업 웹사이트, 현지 언론

□ UAE 유기농 인증 제도

○ ESMA는 UAE 내에서 생산, 가공, (재)포장된 유기농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 제품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기농 인증을 관장하고 있음. 실질적인 인증 발급은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ESMA의 웹사이트(esma.gov.ae)에서 확인 가능함.

- 기본적으로 UAE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은 걸프지역 표준화기구(GSO)가 규정한 포장 및 라벨링 제도(UAE.S. GSO 9 : 2013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를 준수해야 하며, FIRS(Food Import and Re-export System)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육류가 포함된 제품은 할랄 인증 취득이 필수 요소임.

ESMA 유기농 인증 취득을 위한 구비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작물 (Crops) | 1. 농장 소유권 트레이드 라이선스 / 산업 라이선스 (Farm Ownership Trade license / Industrial license) 2. 제품의 적합성 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the Products) 3. 질병관리, 방제, 토양개량, 위생관리, 종자처리, 접종제 등에 대한 라벨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Label and/or MSDS for all substances disease control, pest control, soil amendments, sanitation agents, seed treatments and inoculants) 4. 구매한 모든 종자 품종 및 송장에 대한 라벨 및 유기농 인증 (Label/ Organic Certificate(s) for all purchased organic seed varieties and invoices) 5. 비료 구매 및 소모율 (Fertilizer purchase and consumption rate) 6. 물, 토양, 작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농장의 퇴비가 농약, 중금속 분석이 요구되는 경 우) (Test report- Water, Soil and Crops. In case of compost produced from their farm needs to tested against pesticide, heavy metal analysis) 7. 비유전자변형 성적서 (GMO free test) 8. 농장지도 (Farm Map(s), Yard Map(s), Production Unit (Field) Map(s)) 9. 차량 및 창고 청소 등 현장 관리 이력 및 계획 (Field Management History &Plan- cleaning record for vehicle, storage) 10. 수확 및 판매 기록 (Planting harvesting and sales record) 11. 제품 라벨 (Product label) |
| 축산 (Livestock) | 1. 트레이드 라이선스 / 산업 라이선스 (Trade license / Industrial license) 2. 제품의 적합성 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the Products) 3. 물, 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Test report- water and feed analysis) 4. 질병 관리 계획 (Disease management plan- how to treat the diseased livestock and its management) 5. 백신 접종 일정 (Vaccination schedule if vaccinating and its label) 6. 가축, 치료 내용 등에 대한 송장 (Invoices- livestock, treatment substances etc.) 7. 청소기록 (Cleaning record- sanitizers and its label) |
| 가공식품 (Processed Food) | 1. 트레이드 라이선스 / 산업 라이선스 (Trade license / Industrial license) 2. 제품의 적합성 선언 |

| | |
|--|---|
| | (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the Products) |
| | 3. 공정과정 (Process flow- OCP) |
| | 4. 물,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Test report- water and product) |
| | 5. 조달된 제품에 대한 유기농 증명서 (Organic certificate for the product procured from the supplier) |
| | 6. 방제실행 (Pest control practice) |
| | 7. 유기농 제품 프로필 (Organic Product Profile) |
| | 8. 모든 유기농 라벨에 대한 증명 (Label Proof for all organic labels) |
| | 9. 유기농 홍보에 대한 증명 (Proof for advertisements bearing organic claims) |
| | 10. 위생관리에 대한 라벨 및 MSDS (Label and/or MSDS for all sanitation agents) |
| | 11. 방제 물질에 대한 라벨 및 MSDS (Label and/or MSDS for all pest control substances) |

자료 : ESMA

○ UAE 유기농 제품 인증 로고 EOPM(Emirates Organic Product Mark)

- UAE 내에서 생산, 가공, (재)포장된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에 유기농 표기를 위해서는 ESMA의 유기농 인증 취득을 해야만 EOPM을 부착할 수 있음. ESMA는 로고 디자인, 크기, 색상 등 로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UAE 유기농 제품 인증 로고 예시



주 : 해당 로고의 크기는 3cm x 1.5cm가 표준이며, 가로와 세로 1:2 비율을 준수해야 함.

자료 : ESMA

□ 유관 전시회

○ Gulfood

| | |
|------|---|
| 전시주제 | 식품산업 전반 |
| 개최기간 | 2020년 2월 16일 ~ 2월 20일 |
| 개최장소 | UAE Dubai World Trade Centre |
| 개최규모 | 120개국 5,000여 개사 전시 참가 및 98,000여 명 방문 추산 (2019년) |
| 주최 | Dubai World Trade Centre |
| 홈페이지 | https://www.gulfood.com/ |
| 비고 | 1987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대 식품산업 전시 |

○ Middle East Organic and Natural Product Expo Dubai

| | |
|------|---|
| 전시주제 | 식품, 화장품 등 천연, 유기농 산업 전반 |
| 개최기간 | 2019년 12월 3일 ~ 12월 5일 |
| 개최장소 | UAE Dubai World Trade Centre |
| 개최규모 | 55개국 225여 개사 전시 참가 및 7,332여 명 방문 추산 (2018년) |
| 주최 | Global Links Exhibition Organizers & Conferences LLC |
| 홈페이지 | https://organicandnatural.com/ |
| 비고 | 2003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MENA 지역 최대 천연, 유기농 전시 |

□ 시사점

○ 국제 유기농 인증 취득을 통한 제품 홍보

- 유기농 완제품을 UAE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USDA, EU의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함. 유기농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해당 인증 로고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UAE 내 유기농 제품에서 유기농 인증 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현지 유기농 제품 유통 업체의 관계자는 KOTRA 두바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유럽의 유기농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임. 유럽계 혹은 젊은 이마라티(자국민)가 주요 고객이며 최근에는 식음료 뿐만 아니라 유기농 세제,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찾는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의견을 줌.

USDA, EU 유기농 인증 로고



자료 : KOTRA 두바이 무역관

○ 한국 기업에게 주어진 기회

- 유기농, 천연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의 제품을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가 생겨나고 있음. 대기업의 제품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서 방부제 등 화학첨가제를 넣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의 확산이 신뢰도 하락 요인이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지라도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찾아 소비하는 경향이 있음. 그에 따라 천연, 유기농 식음료품을 생산하는 한국 중소기업에도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점차 자국의 유기농 식품 자급률을 높이고자 UAE에 유기농 농장 등 유기농 제품 생산시설이 설립되고 있음. 이에 UAE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UAE 내 생산이 어려운 한국의 유기농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 노하우나 설비 등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진출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만함.

○ 유관 전시 참가와 SNS를 활용한 홍보

- 유관 전시회 참가를 통한 인지도 확산, 네트워크 형성, 트렌드 등 정보 공유의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SNS를 통해 홍보 시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ESMA, KATI, Euromonitor, Fitch Solutions, Gulfood Global Industry Report 2019, YouGov, Worldometers, 네이버 지식백과, 현지 언론, 각 기업 웹사이트,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2019-12-03 이정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5. 요르단 출산을 꾸준히 증가세, 우수한 품질을 내세워 유아용품 시장 공략 필요

- 요르단의 신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에게 공급되는 제품은 저품질의 중국산 제품 다수 -
- 품질과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유아용품의 특성상, 우수한 품질의 국내기업 진출은 유망할 것으로 평가 -



자료 : idealbabycare.com

□ 시장동향

○ 시장 개요

- 요르단은 중동 내에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거대한 시장을 가진 국가들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약 20여개의 에이전트사들이 이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음.
- 유아용품의 특성상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요르단의 가정에서는 고품질의 유아용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며 대부분의 유아용품을 해외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유망 품목

- 기존의 유아용품은 이유식, 유아용 의류, 장난감 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음.
- 하지만, 2016년 이후부터 요르단에는 유아용 카시트, 젖병, 살균기, 자동 분유제조기 등 세부용도의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요르단은 대중교통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도로의 상태나 신호기기 역시 열악하여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함.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족 단위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유아용 카시트가 사실상 필수임.
- 또한,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분유의 온도를 맞추는 것인데, 최근에는 자동으로 온도와 양을 맞춰 분유를 제조해주는 기기가 요르단 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음.

□ 경쟁동향 및 주요 브랜드

○ 품목별 주요 국가별 브랜드

| 연번 | 이름 | 제조국 | 사진 |
|----|-------------------------------------|-------------|---|
| 1 | Cam-Combo Car Seat (유아용 카시트) | 중국 |  |
| 2 | Chicco-Keyfit Car Seat (유아용 카시트) | 이탈리아, 중국 |  |
| 3 | Babybrezza (자동 분유제조기) | 중국 |  |

| | | | |
|----|--|-------------|---|
| 4 | Philips Avent (젖병 예열기) | 중국 |  |
| 5 | Chicco Bottle Warmer (젖병 예열기) | 이탈리아 |  |
| 6 | Philips Avent Classic Feeding Bottle (젖병) | 프랑스 |  |
| 7 | Chicco Natural Feeling 330 ML Fast Flow (젖병) | 이탈리아 |  |
| 8 | Chicco Bottle Warmer (젖병 예열기) | 중국 |  |
| 9 | Nuk Steam Sterilizer Vapo (살균기) | 독일 |  |
| 10 | Chicco Sterilizer 3 in 1 (살균기) | 이탈리아, 중국 |  |

자료 : 암만 무역관 자체조사

□ 주요 품목별 수입규모 및 동향

○ 유아용 카시트, 플라스틱 젖병, 식기 예열기, 조제용 살균기 등은 주로 중국, 유럽, 터키 등지로 부터 수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아래와 같이 주요 국가만 수입

<주요 품목별 수입규모>

(단위 : 달러)

| 해당 HS 코드 | 품목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9401.80 | 안전의자 (유아용 카시트) | 604,000 | 564,000 | 622,000 |
| 3926.90 |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 (플라스틱 젖병 등) | 47,583,000 | 44,657,000 | 45,630,000 |
| 8516.79 | 가정용 전열기 기타 제품 (식기 예열기, 조제용 살 균기 등) | 3,253,000 | 2,592,000 | 2,219,000 |

자료 : 요르단 통계청

<안전의자(유아용 카시트 등) 수입 동향>

(단위 : 달러)

| 순위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
| | 국가 | 수입액 | 국가 | 수입액 | 국가 | 수입액 |
| 1 | 중국 | 533,000 | 중국 | 397,000 | 중국 | 572,000 |
| 2 | 이탈리아 | 49,000 | 이탈리아 | 59,000 | 미국 | 40,000 |
| 3 | 포르투갈 | 13,000 | 터키 | 36,000 | 터키 | 8,000 |
| 4 | 미국 | 5,000 | 스페인 | 27,000 | 이탈리아 | 1,000 |

자료 : 요르단 통계청

< 플라스틱제 기타제품(플라스틱 젓병) 수입 동향 > (단위 : 달러)

| 순위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
| | 국가 | 수입액 | 국가 | 수입액 | 국가 | 수입액 |
| 1 | 중국 | 18,099,000 | 중국 | 15,435,000 | 중국 | 16,526,000 |
| 2 | 사우디 | 3,205,000 | 이탈리아 | 3,415,000 | 사우디 | 3,008,000 |
| 3 | 터키 | 2,902,000 | 터키 | 2,957,000 | 이탈리아 | 3,008,000 |
| 4 | 이탈리아 | 2,706,000 | 사우디 | 2,572,000 | 터키 | 2,925,000 |

자료 : 요르단 통계청

< 가정용 예열기 기타 제품(식기 예열기, 조제용 살균기 등) > (단위 : 달러)

| 순위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
| | 국가 | 수입액 | 국가 | 수입액 | 국가 | 수입액 |
| 1 | 중국 | 1,935,000 | 중국 | 1,375,000 | 중국 | 1,252,000 |
| 2 | 터키 | 421,000 | 프랑스 | 549,000 | 터키 | 287,000 |
| 3 | 프랑스 | 341,000 | 터키 | 222,000 | 인도네시아 | 204,000 |
| 4 | 이탈리아 | 199,000 | 인도네시아 | 102,000 | 프랑스 | 144,000 |

자료 : 요르단 통계청

□ 관세율 및 현지 규제

< 관세율 및 판매세 > (단위 : %)

| HS코드 | 제품 | 관세 | 판매세 |
|------------|--|----|-----|
| 9401.80100 | Safety seats suitable for use for 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 in motor vehicles or other means of transport | 0 | 16 |
| 8516.79 | Electro thermic machines and appliances provided they are normally used in the household | 30 | 16 |
| 3926.90 | Pacifiers (or "baby's dummies") | 5 | 16 |

자료 : 요르단 세관

○ 유아용 카시트 제품의 경우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유아용 카시트 제품 중 전자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수출이 어려울 수 있음)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European Union and UNECE regulations

○ 젓병 및 유아용 식품에는 화학성분 및 위생을 중요하게 검사하고 있음.

- (오역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내용 영문 업로드) Prohibits any graphic representation other than for illustration cleaning and sterilization and the logo of the manufacturer or distributor to be on the label, package or container of a feeding bottle, teat or feeding cup. The intention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e care can see if the bottle and/or feeding cup are thoroughly cleaned (milk residue increases the risk of bacterial growth), to ensure grading are clearly visible and not to encourage the use of a bottle or a feeding cup.

□ 유통구조

○ 일반적으로 요르단의 유통과정은 해외 유통품 제조업체 -> 에이전트/도매업체/유통업체 -> 소매업체

-> 최종소비자로 이뤄짐.

- 일반적으로 현지의 에이전트(수입업체)는 주문, 취급 및 운송, 보관, 전시, 마케팅 및 홍보, 판매, 애프터서비스 등 유통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현지 에이전트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겸하는 경우도 있음.

- 현지 에이전트는 보통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종종 대형쇼핑몰, 약국, 유아용품점, 장난감 전문점과 제휴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함.

○ 수도 암만에는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역이 두 군데 있음.

- Khalda and Al Madina Al Monawara Area : 해당 지역은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지역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로 유명함.

- Malls (City Mall, Meeca Mall, Abdali Mall) : 해당 3개의 쇼핑몰은 요르단 내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매장들로, 비교적 최근에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들이 입점하기 시작하여 질적이나 양적으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요르단 내에서 유아용품 전문점으로 알려진 업체는 다음과 같음.

- Robins Trading Est : 1990년에 설립된 영유아용품 전문 도매업체로 Chicco, Artsana를 비롯한 20여개사의 에이전트사로 활동하고 있음. 현재 요르단 유아용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만과 이르비드에 총 6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 Abu Ajmish Noble Boy : 2007년에 설립된 유아용품 수출입 전문 도매업체임. 해당 업계에서는 비교적 신생업체로 평가되며, 타 업체들에 비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음.

□ 현지 바이어 의견 및 유의사항

○ 현지 바이어 의견(무역관 다수 바이어 의견 종합)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요르단의 연간 출산율은 약 18만 명에서 21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요르단 시장에 있어 유아용품 시장은 매우 유망하다고 평가됨.

- 현재 요르단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유아용품이 중국산으로, 비교적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음.

- 품질과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유아용품의 특성상, 우수한 제품성으로 평가받는 한국 업체들의 진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품질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가격대, 신속한 피드백,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된다면 큰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함.

□ 시사점

○ 요르단은 다른 아랍국가와 마찬가지로 한 가구당 출산율이 아직까지는 높은 편으로 유아 용품 시장 진출이 유망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아직 한국산 제품은 진출이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에게는 신규 시장으로 다가올 수 있음. 이미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유아용 제품은 저품질 보단 고품질을 선호하는 요르단 소비자들의 성향은 동일하기에 유럽 및 미국산 제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산 보다는 고품질의 전략을 추진한다면 시장에서의 승산이 있을것이라 판단됨.

자료 : 요르단 통계청, 요르단 세관, United Nations COMTRADE, 암만 무역관 자체조사

2019-12-03 최명근 요르단 암만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